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구·경산 대규모 채용박람회 개최 “700명 지원 올해 최대 규모”

2025. 8. 14.

지난 13일 대구 영남이공대학교에서 개최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규모 채용박람회’에 올해 최대인 700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 **대구·경산·칠곡 고용센터 등 지역 일자리 기관과 협력해 지역 홍보 강화**
- **대구·경산 7개 FC 참여 ‘원스톱 현장 면접’ 현장관리자, 재고검수, 지게차 등 다양한 직군 채용**
- **증명사진 촬영, 웰컴키트 및 경품추첨, 커피차 등 부스 마련해 구직자 편의와 즐거움 더해**

2025. 08. 14. 서울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전국 단위 대규모 채용을 이어 나간다.

CFS는 지난 13일 대구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에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인천, 7월 성남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린 행사로 700명의 구직자가 몰려 지원 접수를 했다. CFS 지역별 채용박람회에서 올해 최대 지원자 규모다.

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대구, 경산에 위치한 쿠팡 7개 풀필먼트센터(Fulfillment Center)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채용 직무는 입고, 출고, 허브, 재고 검수, 반품 상품 검수, 지게차 운행, 물류 현장관리자 등으로 취업 상담부터 현장 면접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됐다. 또한 현장 접수만으로도 바로 면접이 가능하도록 별도 창구를 운영해 구직자 편의를 더했다.

지난 13일 대구 영남이공대학교에서 개최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남부권 대규모 채용박람회'에 현장면접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구·강북·경산·달성·동부·서부·칠곡 등 7개 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함께하여 지역 홍보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무료 증명사진 촬영, 웰컴키트 및 경품추첨, 커피차, 미술심리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에 거주하는 20대 박 모 씨는 "이렇게 한자리에서 여러 센터의 채용 정보를 듣고 바로 면접까지 볼 수 있어 좋았다"며 "예전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한 경험을 살려 오늘은 정규직 현장관리자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수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최고인사책임자, 이재용 영남이공대학교 총장, 김선재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이 채용박람회를 기념하고 있다

김선재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은 "이번 박람회는 대구·경북권의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면접까지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쿠팡과 같은 안정적인 기업이 지역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재용 영남이공대학교 총장은 "우리 대학은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채용박람회를 계기로 학생뿐 아니라 지역 구직자들도 취업 기회를 넓히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CFS 최고인사책임자는 "쿠팡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대구 경산 지역은 지속적으로 채용 인원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박람회가 많은 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

다"고 덧붙였다.

CFS는 앞으로도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이어가며 지역사회 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